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권성달

(충신대학교)

Kwon, Sung-Dal. 2008. A Comparative Study of the ‘to be’ Equivalent in Korean and in Various Languag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2), 69-91.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ructive and semantic nature of the “be” equivalen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ida”) in various different languag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inguistics. We have classified the ‘be’ equivalent under three semantic categories as follows: Category A (simple “to be”), Category B (“to exist”), and Category C (“to become”). Upon investigation of the ‘be’ form in several different languages, we have conclusively found that the semantic definition of ‘be’ in some languages is clearly divided while in other languages this is not the case. Furthermore, such phenomena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yntactic structure of each language. For example, in languages such as Sumerian or the Altaic languages in which the preposition does not exist and the postposition or suffix is developed, the semantic division of the ‘be’ equivalent is apparent. In other languages such as the Semitic or Indo-European languages in which the preposition is developed, the division is not as obvious, and we find that a single word may be classified under more than one category. Also, while the “be” in categories B and C is considered to be a verb in all languages, the “be” in category A such as ‘ida’ in Korean, ‘me’ in Sumerian, ‘ma’ in Akkadian, and ‘yeh’ in classical Chinese is not considered to be a verb and is merely an indicator of the predicate.

주제어(Key words): ida, ‘to be’, copula, Altaic

* 이 논문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에 제출된 본인의 박사논문[(2007). HYH(=‘to be’)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Syntactic, Pragmatic and Semantic Studies by means of Statistical Analysis (written in Hebrew)]의 제1장 중 일부를 근거로 수정,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to be' 상당어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언어 속에서와 우리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통사-의미 구조를 비교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핀다. 세계 여러 언어 속에서 'to be' 상당어는 여러 가지 단어와 대응되지만 크게 다음 세 가지 의미론적 범주로 나눌 수 있다: 'simple to be/이다'(범주1), 'to exist/있다'(범주2), 'to become/되다'(범주3).¹⁾

우리말에서는 범주2('있다')와 범주3('되다')에 대한 토의보다는 범주1인 '이다'에 대한 논의가 지난 수 십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아직도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다'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시사해 준다. 전통문법에서는 용언이나 조사나 하는 두 가지 견해로 열띤 논의가 있었으며 용언설, 조사설, 파생 접사설과 같이 세 가지 견해로 논의가 되기도 한다.²⁾ 'to be'와 관련된 세 가지 의미론적 범주가 전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몇 가지 어휘적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말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이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to be'에 상응하는 단어가 우리말의 '이다', '있다', '되다'와 같이 의미론적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는가하면 인도-유럽어를 포함하여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에서는 한 단어가 두 개, 혹은 세 개의 의미론적 범주를 포함하는 현상이 나타

1) 여기서 'to be'란 'He is waiting for you.'에서의 'is'와 같은 조동사적 사용이나 상적 표현을 위한 보조적 사용이 아닌 본 용언으로 사용된 'be'만을 의미한다. 'to be'에 상응하는 여러 언어 중 북서부 셈어에 속하는 고대 히브리어의 경우 그 의미 영역은 매우 방대하다. 구약 성서에 대한 영어 번역서인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의 경우 'to be'에 상응하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인 HYH (היה - haya)를 약 80가지로 번역한다. 번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be'이며(약 40%) 그 다음으로는 'become', 'come', 'there is', 'have'의 순이며 그 외에도 'happen', 'remain', 'serve', 'belong', 'fall', 'bring', 'go', 'hold', 'keep', 'occur', 'appear'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방대한 의미 영역을 갖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론적 기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세 가지로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1범주인 '이다'(=simple to be)에 자체적인 의미가 있는가', '제2범주인 '있다'를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과 단순한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같은 논의는 우리말을 포함하여 어떤 언어에서든지 간에 가능한 논의라 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다루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박사논문 (2007)과 Tsidka (1974), Bartelmus (1982) 등을 참고하라.

2) 최현배, 남기심, 박승빈, 서정수, 양정석, 엄정호, 이남순, 최용환, 김의수, 김익수, 김광해, 서정목 등이 용언설을 지지하는 이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인승, 국립국어연구원, 현행 학교문법, 우순조, 최기용 등이 조사로 보는 견해이며 임흥민, 고창수, 시정근, 안명철, 박호관 등이 파생접사로 보는 견해에 속한다.

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통사적 구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 목적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언급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보편성과 특정 언어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특수성 사이에서 그 구분선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언어들은 그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언어 내에서도 시대나 장르 등에 따라 나름대로 특수성이 발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언어는 보편적으로, 혹은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할 한다.³⁾

언어를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특히 언어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제안되는데 즉, 계보적 분류와 지역적 분류, 그리고 순수한 통사적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순수하게 통사적인 방법을 통해 작업을 할 것인데 이 통사적인 방법이란 역사적 기원이나 현재나 과거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고려 없이 구조나 유형이 비슷한 형태론(isomorphism)에 기초한 언어 유형으로 언어를 그룹 짓는 것이다(Bynon, 1977: 262). 본 논문에서는 주로 문법적 수준에서 다룰 것인데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 속에서 'to be'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론적 범주와 형태-통사론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2. 수메르어

수메르어는 구어로서 세계 최초의 언어라는 증거는 없으나 문서로 입증된 세계 최초의 언어이며 그 역사는 기원전 3,1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르어와 그 문화는 정확하게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으나 셈어와 알타이어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흔적이 보인다. 수메르어의 'be'의 지위에 대한 파악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몇 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순서. 수메르어에서 동사가 사용될 경우 정상적인 단어 순서는 동사가 문장의 가장 끝에 위치하는 것이다. 그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목적

3) 촘스키(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에서부터 현대 언어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언어학적 보편성(linguistic universal)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있어 왔다. 보편성과 유사성의 관계, 우발적 보편성과 필수적 보편성의 구분과 같은 작업은 어려운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대부분의 현대 언어학자들은 인간 언어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언어의 보편성과 보편적 문법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Fromkin 1993: 17, Schmalstieg 1980: 17을 보라). '보편성과 to be의 문제', '보편성과 유사성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Mey (1967: 2-15)를 보라.

어는 동사 보다 앞선다. 즉 주어-목적어-동사의 순서 이다. 서술부의 중심을 이루는 동사가 가장 뒤에 위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고방식과 직관되어 있다. 동사가 가장 뒤에 위치하는 언어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접근하려는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본다⁴⁾. 그런 언어에서는 화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아야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언어는 가장 뒤에 나오는 서술어와 접미사들이 발달되어 있다.

둘째, 수메르어에는 전치사가 없으며 그 대신에 후치사, 혹은 접미사가 발달되어 있다.⁵⁾ 어떤 언어에서 전치사의 유무는 단어 순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치사가 있는 언어들은 대개 접미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동사 혹은 서술어는 전치사구 앞에 위치한다. 'be'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때 전치사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치사는 특히 범주2나 범주3에서 술어를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쥘드카 (1974: 35)는 현대 히브리어를 취급하는 그의 박사논문에서 "הַלְלוּהוּ בְּבֵיתוֹ" (하렐레드 바헤테르, The child at home.=The child is at home.)와 같은 문장의 심층적 술어는 전치사 "בְּ" (베, at)라고 한다. 따라서 소위 명사문장, 혹은 동사 없는 문장은 전치사가 발달된 언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치사의 유무는 명사문장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전치사가 발달된 언어라고 무조건 명사문장이 발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치사가 없고 대신에 후치사나 접미사가 발달된 언어에서는 명사문장이 (특히 범주2나 3에서)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셋째, 의미론적으로 'be'와 관련된 단어는 세분화되어 있다. 수메르어에서는 우리말과 같이 'be'에 해당하는 단어가 적어도 세 개 있으며 그들은 각각의 고유적 의미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me

diġir-ra-ni Šul.utul-am₆ 'his god is Šulutul' (Thomsen, 1984: 276)

4) 예를 들어 주소를 표현할 때도 그러한 언어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대림아파트 105동 302호'와 같이 세부사항이 가장 뒤에 위치하며 이름을 표현할 때도 성(family name)을 먼저 표현한 후 나중에 이름을 표현하나 그렇지 않은 언어는 정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두 가지 대조적인 언어 구조는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be' 상당어가 각각 다른 별개의 단어로 나타나는 구조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현상을 가진 구조로 나뉘어 지며 그 두 언어 구조들은 서로 다른 통사 구조를 가짐을 보게 될 것이다.

5) 기본적으로 OV의 순서를 가지는 언어는 후치사를 가지며 VO의 순서를 가진 언어는 전치사를 가진다는 것이 최근 비교 언어 연구자들의 생각이며(Bynon 1977: 263), OV순서를 갖는 언어에서는 대개 관계대명사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Fox 1995: 262).

luḡal-me-en 'I am the king' (Hayes, 1997: 33.)

me는 자체적인 의미는 없고 명사나 형용사가 술어임을 나타내주는 역할만을 한다. me는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 일반 동사와 같이 어형 변화하여 사용하는 것과 이 어원의 축약된 형태를 접미어로 사용하는 것인데 두 번째 것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me가 일반 동사와 다른 것은 그것은 시제나 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어간이라는 점이다 (Thomsen, 1984: 273.). 엄격하게 말하면 이 단어만이 수메르어에서 범주1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이 단어에서는 '있다'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다. 수메르어 me는 자체적인 의미는 전혀 없고 단지 술어임을 표시해주는 '술어표지자'로서의 기능만을 한다.⁶⁾ 수메르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me를 전접적(前接的)으로 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그들도 me를 다른 동사와 같이 보지 않았음을 예측케 해 준다.

(2) ḡál

ki.sur.ra Nin.ḡír.su-ka-ta a.ab-šè maškim di e-ḡál-lam 'there was a bailiff from the boundary ditch of Ningirsu until the sea' (Thomsen, 1984: 121)

za-a-da ša-mu-e-da-ḡál 'it is with you' (Thomsen, 1984: 217)

이 단어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어의 'exist'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미론적 범주2에 해당한다. 이 단어는 수메르어에서 의미, 통사론에서 일반 동사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3) tuku

mu ibila nu-ù-tuku-a-šè 'because he has no heir' (Thomsen, 1984: 191)

이 단어는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다른 동사와 동일하게 사용된다.⁷⁾ 수메르어에는 'become'(범주3)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마도 become+형용사의 형태를 갖는 동사들이 풍부하

6)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된 명령문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Gragg 1967: 92) 이 단어의 무의미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7) 우리의 의미론적 범주에서는 '가지다'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있다'의 의미론적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특히 'have' 동사가 없는 언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게 존재하기 때문인 듯하다.⁸⁾

3. 알타이어

알타이어의 대표적인 언어는 몽골어, 투르크어, 한국어 및 일본어이다.⁹⁾ 우리말이 속해 있는 알타이어는 우리의 주제인 'to be'와 관련하여 수메르어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¹⁰⁾ 위의 언어들은 사어인 적이 한 번도 없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언어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를 거듭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약 5,000년 전의 언어인 수메르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알타이어족의 언어는 모두 교착어로서 특히 동사접미(verbal suffix)가 풍부하게 발달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의미의 모든 섬세한 뉘앙스를 표현한다(Iwasaki, 2002: 9; Miller 1980: 79-80). 관계대명사가 없으며 따라서 종속절이 없다는 점, 관사가 없다는 점, 명사의 성이 없다는 점에서 수메르어와 동일할 뿐 아니라 단어 순서에 있어서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전치사가 없고 접미사나 격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메르어와 동일하다. 특히 'be'와 관련된 단어들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수메르어와 공통점이다. 알타이어족의 언어에서는 우리가 구분을 한 'be'의 의미론적 범주 세 가지, '이다(범주1)', '있다(범주2)', '되다(범주3)'가 구분 되어 있다.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각 나라의 단어는 다음과 같다:

8) 예를 들면, dirig 'to become loose', heši 'to become dark', kur 'to become strange', ši 'to become tired', ten 'to become cool', ud šuš'to become dark', ul 'to become bright' 등이다.

9) 일본어의 발생과 관련하여 알타이어족임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일본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Miller 1980: 77-80을 보라.

10) Campbell (1998: 165)에 의하면 수메르어는 다른 어떤 언어와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고립어 (isolate language)에 분류되는 언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메르어가 알타이어와 형태, 통사론, 의미론(특히 to be와 관련된)에 있어서 많은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조철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Cho, Cheol-Su, *Sumerian Verbal Prefixes: Structure, Function, and Meaning*,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to the Senate of the Hebrew University, 1991)에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그 후에 발표한 소논문에서 수메르어가 알타이어 계통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소개하며(1996: 361을 보라), 그 자신도 수메르어와 한국어어의 수사의 유사성에 대해 밝힌다(1996: 370-372을 보라.).

	이다	있다	되다
몽골어	bai	bui	bol
터키어	i-	var	ol-
한국어	ida	idda	doida
일본어	da	aru/iru	naru

세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를 포함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4) 첫째 범주('이다') - "철수는 학생**이다**."

- (몽골어) Chulsoo bagši **bainə**
- (터키어) Chulsoo (bir) **öğretmen¹¹⁾**
- (한국어) Chulsoo-nun sonseng-**ida**
- (일본어) Chulsoo-wa sensei-**da**

(5) 둘째 범주('있다') - "책상에 책이 **있다**."

- (몽골어) šireeᄋ deerə nom **bui**
- (터키어) masada kitap **var**
- (한국어) cheksang-uie chek-i **idda**
- (일본어) teiburu-ni hon-ga **aru**

(6) 셋째 범주('되다') - "우리 아들은 선생이 **될 것이다**."

- (몽골어) manae xww bagši **bolnə**
- (터키어) Bizim oğlumuz **öğretmen ol-acak**
- (한국어) uri adul-un sonseng-i **doil-gosida**
- (일본어) watahitachi-no musuko-wa sensei-ni **narudarou**

의미론적 견지에서 네 언어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세 가지 범주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반면에 터키어와 몽골어는 상대적으로 그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즉 터키어와 몽골어에서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적 범주를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터키어와 몽골어에서는 소위 '명사문장'이 존재한다. 즉 첫째 범주에서 범주1(단순 *be*)이 생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썬어나 러시아어에서처럼 세 가지 범주 모두에서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한 예에서 터키어와 몽골어는 주격이 나타나지

11) 터키어에서 비법적 발화(non-modalized utterance)는 계사(copula)를 갖지 않지만 과거 시제나 사건의적 형식은 계사의 모호적 형태인 *ol-*을 사용해야 한다. Göksel (2005: 120)을 보라.

않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주격이 사용된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에서 수메르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는 터키어와 몽골어보다는 한국어와 일본어이다.

4. 셈어

4.1 아카드어

동부 셈어에 속하는 아카드어는 셈어 계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이다. 기록된 최초의 증거는 기원전 26세기의 것으로 수메르어에 비해 약 500년 뒤지는 것이다. 수메르어가 사라진 시기는 언제인지 불분명하지만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는 서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남부 바벨론에 수 세기 동안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다.

아카드어는 수메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셈어 계보에 속하고 수메르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아카드어에는 수메르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셈어적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카드어에는 명사의 성이 존재하나 수메르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수메르어는 후치사나 접미사들이 발달되어 있고 10개의 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카드어는 3개의 격만 존재하며 다른 셈어들처럼 전치사가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전치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수메르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고 종속적 접미사가 있는데 (Thomsen, 1984: 241-242) 아카드어에도 동사의 종속적 형태가 있지만 관계대명사를 통한 표현도 발달되어 있다(Huehnergard, 1996: 185, 221). 아카드어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비셈어적 요소는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동사가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언어는 셈어의 특징이 아니다.¹²⁾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아카드어의 특징은 아카드어에는 'be'에 해당하는 단어 중 범주1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카드어에는 다른 셈어에서와 같이 명사 두개만 나열하는 동사 없는 명사문장이 존재 한다.

Hammurapi šarrum ša Babilim 'Hammurapi **is/was** (the) king of Babylon.' (Huehnergard, 1996: 12)

12) 동사가 마지막에 위치하는 언어(verb-final language)는 전적으로 셈어와 관련이 없다. (Deutscher, 2000: 20을 보라.)

'be'와 관련된 아카드어 단어는 -ma, bašu (to exist), ewû (to become), išû (to have) 등이다. 이 단어들 중 *ma*를 제외한 세 단어는 모두 동사들이다. *ma*는 동사가 아니라 전접어 형식으로 명사뒤에 붙는 것이며 명사문장에서 사용된다.¹³⁾

물론 하나 이상의 의미와 용도를 가진 단어들도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 '하야(haya)'와 같이 모든 의미론적 범주를 다 포괄하는 단어는 없다. 그러나 명사 문장에서 이미 의미론적 범주 2 '있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카드어에서 발견된다.

Amatum ina alim 'The women servants **are/were/will be** in the town.'
Ina alim ninu 'We **are/were/will be** in town.' (Huehnergard, 1996: 12)

수메르어의 *me*는 의미론적 범주1 '이다'에서만 사용되는데 비해 (Thomsen, 1984: 273-278) 아카드어에서는 비록 명사문장에서이지만 두 가지 의미론적 범주가 발견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기 셈어에 해당하는 아카드어 명사문장에서 이미 의미론적 범주의 확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론적 확대는 수메르어와 같이 전치사가 없는 언어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이미 언급한 'be'와 관련된 아카드어 네 단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7) -ma

Adad šarrum-**ma** 'Adad is king.' (Caplice, 1988: 27)

언급한 바와 같이 -*ma*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전접적으로 명사뒤에 붙어서 명사문장에서만 사용된다. 여기서의 -*ma*는 'be'의 감각으로 사용되었으며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아카드어의 -*ma*는 수메르어의 *me*와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아카드어의 -*ma*가 수메르어의 *me*에서 기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단어가 모두 의미론적 자체 의미를 소유하지 않고 *be*의 감각으로 사용되었

13) Huehnergard (1986: 235-241)는 *ma*의 계사로서의 기능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는 3인칭대명사의 계사적 사용에 대해 언급하지만 아카드어에서 3인칭대명사가 과연 순수한 계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는 계사로 사용된 3인칭대명사가 다른 셈어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하며 히브리어에 대한 예로 창세기 36:8을 드는데 그런 류의 3인칭대명사가 과연 계사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것이 아니다.

다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한 것이 분명하다.

(8) bašû

이 단어는 CAD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vol. 2)에 pp. 144-161까지 무려 18페이지나 할애를 할 만큼 아카드어에서 매우 편만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CAD는 이 단어의 뜻을 네 가지로 요약한다: (CAD vol. 2 p. 144.)

1. to exist 2. (in the form ibašši) it is certain 3. (šubšû) to make come into existence 4. (nabšû) to come into existence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예문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이 단어는 우리의 의미론적 범주2에 속하는 동사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그 단어에 대한 사용용도의 편만함에 비해 의미론적 용도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뜻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ibašši 형태로의 사용이 범주2와는 관련이 없고 강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강조적 사용이 이 단어를 범주1로 분류시키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9) ewû

CAD는 이 단어의 뜻을 세가지로 표현한다. (CAD vol. 4 pp. 413-415)

1. to change, turn into (intrans.) 2. (ummû) to turn, change into (trans.) 3. (šûmû) to turn into (trans.)

이 단어는 자동사로 사용되든지 혹은 타동사, 혹은 사역형으로 사용되든지 간에 모두 상태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의 의미론적 범주3에 해당하는 동사이며 다른 범주에서의 사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10) išû

CAD는 이 단어의 뜻을 세가지로 표현한다. (CAD vol. 7 pp. 289-293)

1. to have, to own 2. to have a claim (against somebody), to have money or property owing 3. (used as a copulative in EA)

여기서 1번과 2번은 소유와 관련된 것이므로 범주2에 속한다. 3번은 CAD가 계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그곳에 나온 예문들을 볼 때 모두 범주2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라:

šumma [i]-šu URUDU.MEŠ u šenni ana jāši if **there is** copper or ivory(?) for me

ina rabiš šarri ša i-šu-úina GN baḫtat Gubla Byblos has been saved by the king's governor, who **was** in GN

LÚ.MEŠ mār šipri ša i-[šu- ú]ttika the messengers who **are** with you

위에 나온 세 개의 예문은 모두 우리의 의미론적 범주2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사적인 사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오히려 이 예문들은 소유적인 개념도 범주2에 들어가는 개념임을 암시해 주는 좋은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아카드어에서 *be*와 관련된 네 단어를 살펴보았다. 아카드어에서 '*be*'와 관련된 네 단어들 중 *-ma*는 범주1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세 개는 모두 우리의 의미론적 범주2나 3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 단어들은 한 가지 범주를 뛰어 넘어 2가지 이상의 범주에서 사용되지 않음도 알게 되었다. 비록 명사문장에서 범주1과 2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카드어에서도 의미론적 범주는 어느 정도 뚜렷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e*'와 관련된 네 단어 중 범주1에 해당하는 *-ma*는 동사가 아니며 범주2와 3에 해당하는 세 단어는 모두 일반 동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의미론적 범주2와 3이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우가릿어

우가릿어는 아랍어, 히브리어와 함께 북서부 셈어에 속하는 언어이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셈어의 특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형태론과 통사론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가릿어는 명사의 성이 있으며, 전치사가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으며 3개의 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가릿어는 수메르어, 아카드어, 고대이집트어 뿐만 아니라 알타이어(터키어, 몽골어, 한국어, 일본어)와 같이 정관사를 갖고 있지 않다. 단어순서는 운문이든 산문이든 자유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즉 동사문장에서 주어-동사-목적어 뿐만 아니라 주어-목적어-동사의 형태도 등장한다. 그러나 이집트어나 히브리어의 산문에서처럼 동사가 문장의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Gordon, 1965: 138). 우가릿어에는 다른 셈어와 같이 명사문장(동사없는 문장)이 존재한다.¹⁴⁾

우가리트어에서 'be'와 관련된 단어들은 kwn,¹⁵⁾ hpk, sbb, 'it¹⁶⁾(in) 등이다. kwn은 범주1과 범주2에서 사용된다.

(범주1) ʔar um **tkn** lh 'for him she **was** (like) a mother's avenger'
(Lete, 2003: 448)

(범주2) 'drt **tk[n]** 'there will **be** help' (Sivan, 1997: 206)

hpk과 sbb는 범주3에서만 사용된다.

(범주3) ʔrdn **yhpk** l mlk 'our ʔrd will (then) **become** king' (Sivan, 1997: 202)
sb ksp l r^[q]m ʔrṣ **nsb** l lbnt 'The silver **turned into** blocks, the
gold was **turned into** bricks' (Sivan, 1997: 202)

'it ('in)는 존재사로서 범주2에서만 사용된다.

(범주2) 'it . yn '**there is** wine' 'it . zbl 'the prince **exists**'
(Gordon, 1965: 111)

우가리트어에서도 'have'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고 존재사 'it와 전치사의 조합으로 그러한 개념을 표현한다.

(범주2) rgm **it** ly 'a word **is** to me = I **have** something to say'
(Gordon, 1965: 107)

in. bt lb'l '**there is no** house to Ba'l = Ba'l **has no** house'
(Gordon, 1965: 108)

4.3 페니키아어

14) Sivan 1997: 201-204를 보라. 그는 be와 관련된 모든 동사를 '코플라'로 부르고 그 동사가 들어간 절을 동사 없는 절에 포함시킨다.

15) Lete (2003)에 의하면 이 단어와 병행되는 다른 썬어의 단어들은 Hb. kwn; Ph., Pun. Kn; Syr. Kon; Akk. kânu; Arab. Kāna 등이다.

16)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다음 썬어 단어들과 병행된다: Aram ʔyty; Syr. ʔit, Hb. yš Pun. yš ; Akk. Išû (Lete 2003: 123-124.)

가나안의 그리스어 이름인 Phoenicia (Φοινικία)는 1,000년 이상 동안 문어로서 풍성했으며 가장 오래된 문서는 기원전 1,200년의 것이다 (Krahmalkov, 2001: 1, 5). 대부분의 썬어 학자들의 썬어 분류에 의하면 페니키아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가까운 언어로 분류된다. 명사의 성이 있으며, 관계대명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으며 전치사가 발달되어 있다. 페니키아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와 같이 3가지 격은 나타나지 않는다.

페니키아어에서 'be'와 관련된 단어들은 k-n, 'š 이다. hpk은 'overturn'의 뜻으로 사용되며 'turn into'나 'become'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be'와 관련된 단어로 볼 수 없다. k-n은 범주1과 범주2 뿐 아니라, 범주3에서도 사용된다.

(범주1) lmy **kt** 'b wlmy **kt** 'm wlmy **kt** 'h 'To one I **was** a father, to another I **was** a mother, to yet another I **was** a brother.'
(Krahmalkov, 2000: 232-233)

(범주2) **kn** bt 'by bmtkt mlkm 'drm 'My royal house **is** in the midst <of those> of mightier kings.' (Krahmalkov, 2000: 232)

(범주3) **wkn** hqrt z b'lt šb' wtrš w'm 'š yšb bn **ykn** b'l 'lpm wb'l š'n wb'l šb' wtrš
'May this city **be(come)** the possessor of abundance and wine; and may the people who dwell in it **be(come)**the possessors of oxen, the possessors of sheep and the possessors of abundance and wine.' (Krahmalkov, 2000: 233)

'š는 히브리어의 'ש(yesh)처럼 범주2에서만 사용된다.

(범주2) dr' kn' šlm w'š ln mzt' wšp't 'In his time we **were** prosperous: we possessed (lit., **there was** to us) sown land and abundance.' (Krahmalkov, 2001: 276)

4.4 아랍어

아랍어는 히브리어에서와 같이 명사의 성이 있고, 관사가 있으며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있다. 또한 히브리어, 페니키아어와는 달리 3개의 격이 있다. 동사문장에서의 일반적인 단어순서는 동사가 문두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Mace, 1998: 163; Wright 2004: 100).

아랍어에서 'be'와 관련된 단어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 범주2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باقى, وجد, دلم, ظل, (baqa, wajada, dam, tal) 등이며, 범주3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صار, عاد, رجع, اضر (sar, aad, rajaa, ath) 이다.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كان (kana)이며 범주1, 2와 3에서 모두 사용된다.

(범주1) كان أخى رفيقى 'my brother was my companion' (Wright, 2004: 100)

(범주2) المدير يكون فى مكتبه بعد الساعة الثامنة كل يوم 'The director is in his office every day after eight o'clock' (Abboud, 1989:175)

(범주3) كانوا حجارة أو حديدًا 'be ye stones or iron' (Wright, 2004: 99)

'have'의 개념은 대개 동사로 표현되지 않고 전치사들 لى, مع, ل, ع_____ند 전치사들 (inda, li, maa, lada) 중의 하나로 표현되거나 소유자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목적격 대명사 접미(173과 166을 보라)로 표현된다(Mace, 1998: 157).

وكان لهبنون ثلثة 'and he had (lit. there were to him) three sons' (Wright, 2004: 99)

4.5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다른 셈어들처럼 명사의 성이 있고 관사,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있다. 반면에 아랍어나 아카드어와는 달리 격은 없다. 히브리어에서 'to be'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는 HYH (하야, **היה**)이다. 히브리어의 HYH는 아랍어, 페니키아어에서와 같이 우리의 의미론적 범주 1, 2, 3에서 모두 사용된다.

(범주1) **המחלם שיא היה ארה** (여호수아17:1)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다.

(범주2) **סירצמב היה קסוי** (출애굽기1:5)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

(범주3) **ונממ רחאכ היה סראה** (창세기3:22) 그 사람이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4.6 요약

이상으로 셈어의 몇 언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태론적 특징과 동사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언어	전치사	관사	명사의 성	격	관계대명사	동사의 위치
수메르어	없다	없다	없다	10개	없다	문미
아카드어	있다	없다	있다	3개	있다	문미
우가릿어	있다	없다	있다	3개	있다	
페니키아어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아랍어	있다	있다	있다	3개	있다	문두
히브리어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메르어는 다른 썬어들과 형태론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카드어는 비록 썬어이기는 하지만 썬어가 아닌 수메르어의 영향을 받아 여러 썬어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썬어에서 풍부하게 나타나는 전치사도 아카드어에서는 몇 개만이 나타날 뿐이다(Moscatti, 1980: 121). 동사문장에서 동사의 위치를 비교해 볼 때 수메르어와 아카드어는 문미에 오고 아랍어는 문두에 오는 특징을 보이는데 동사가 문미에 오는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에서는 목적어도 동사 전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동사가 문두에 오는 아랍어를 포함해서 동사의 위치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우가릿어나 페니키아어, 히브리어에서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메르어와 썬어에서 범주1을 포함하는 'be'에 상응하는 단어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to be' 대응단어	의미론 범주	명사문장	have 동사
수메르어	me	1	범주1	없다
아카드어	bašu	1, 2	범주1, 2	없다
우가릿어	kwn	1, 2	범주1, 2	없다
페니키아어	k-n	1, 2, 3	범주 1, 2, 3	없다
아랍어	k'n	1, 2, 3	범주 1, 2	없다
히브리어	hyh	1, 2, 3	범주1, 2, 3	없다

아카드어에서 히브리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명사문장(범주1,2 혹은 범주1,2,3)을 갖고 있으며 'to be'에 상응하는 단어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메르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범주1,2 혹은 범주1,2,3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메르어와 같은 언어구조를 가진 언어들에서는 'be'의 개념이

각각 세분화되어 사용이 되지만 썬어에서는 그 각각의 개념을 한 단어 혹은 두 단어에 모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언어들은 모두 명사문장을 가지며 명사문장에서 범주1 뿐 만 아니라 범주2도 포함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명사문장에서 의미론적 범주가 달라질 때 그들의 통사도 달라지는 것을 본다. 즉 범주1에서의 술어는 명사나 형용사이지만 범주2에서는 술어가 명사나 형용사가 아닌 전치사구(혹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치사가 전혀 발달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은 수메르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범주2나 3을 포함하는 명사문장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범주2나 3에 대한 표현은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to be'에 대응하는 단어를 가진 썬어에서도 범주1, 2만을 포함하는 언어들에서는 범주3에 해당하는 표현은 구별된 다른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본다.¹⁷⁾

5. 인도-유럽어

전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 가족이 있는데¹⁸⁾ 인도-유럽어는 방대한 언어들을 소유하고 있으며¹⁹⁾ 그 중 많은 언어들이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유럽어와 원시 인도-유럽어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우리의

17) 언어의 통사 구조 연구에 있어서 수메르어와 썬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에 따른 언어의 분류 중 SVO, VSO, SOV 세 가지를 언급하며 그 중 OV 순서와 VO 순서를 중요하게 보는 견해가 맞다면 (Bynon, 1977: 263-264참조) 문어로서 최초의 언어로 보여지는 수메르어와 알타이어는 OV 순서를 가지며, 아카드어를 제외한 모든 썬어는 그 반대 어순인 VO를 가진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VO의 순서를 갖는 인도-유럽어의 기원을 썬어쪽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사실은 문자의 발달과 알파벳의 발전사를 살펴보다라도 지지를 받는다 (알파벳은 기원전 17세기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되어 페니키아 지역에서 발달하였으며 그리스어를 거쳐 오늘날의 영어에 이르기까지 발달되었다. Naveh, 1994. 와 Yardeni, 2003을 참조하라).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VO 언어는 전치사를 가지나 OV 언어는 전치사 대신 후치사나 다양한 어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여러 언어에서 *to be* 상당어의 다의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8) 언어가족과 그 하부 부류를 분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세계의 언어를 몇가지 가족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 Campbell (1998: 163)은 250여개로 분류하며 Fasold (2006: 299)은 수십개로 언급하고 있다.

19) Campbell (1998: 164)에 따르면 약 110개의 언어들이 인도-유럽어에 속해 있다. Benveniste (1973: 530-531)의 표를 보면 인도-유럽어의 분류를 시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제에 국한하여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인도-유럽어의 형태론적 특징 중 공통적인 것은 관사, 관계대명사, 전치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격이나 명사의 성, 그리고 단어의 순서는 시대와 개별 언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⁰⁾ 인도-유럽어 중에서 명사문장을 소유하고 있는 언어는 극소수이다.²¹⁾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 명사문장은 의미론적 범주1과 2를 포함한다.

(범주1) *duxū bo būdrū, a plūtī nemoštīna*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범주2) *sad okolo doma* 'the garden is round the house' (Vlasto, 1986: 188)

명사문장과 'to be'에 상응하는 단어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²⁾

언어	범주1, 2	범주 3	명사문장	have 동사
그리스어	εἶμαι	ἵνομαι		εἶχω
러시아어	Будьте	Станьте	범주1,2	иметь
독일어	sein	werden		haben
불어	être	devenir		(il) a
스페인어	ser	Favorecer		tener
영어	be	become		have

대부분의 인도-유럽어에서는 범주1과 범주2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며 범주3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분하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6. 중국어

20) Bauer (2000: 336-339)에 따르면 격 체계와 단어순서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원시 인도-유럽어의 단어순서는 OV이었는데 점차적으로 VO의 순서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21) 슬라브어(Slavic) 언어들이 주로 명사문장을 소유하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어의 명사문장은 현대러시아어의 현상이며 17C까지만 해도 계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Choo (2006: 273)의 지적이 옳다면 러시아어의 명사문장은 다른 특정한 언어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볼 수 있다.

22) 영어 일부 언어에서 'to be'가 명령형이나 미래형 등 특정한 경우에 범주3을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It shall be a sign of the covenant.

중국어는 썸어도 알타이어도 인도-유럽어도 아닌 다른 계보를 가진 언어이다(Campbell, 1998: 164). 고전 중국어에서 'be'와 관련된 단어는 *yu*와 *yeh*이다.²³⁾ 이 두 단어 중 *yu*는 범주2를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며 'have' 혹은 'there is'로 번역되며 동사로 취급된다. *chi*는 정체 판명을 위한 특별한 계사이다. 반면 *yeh*는 동사문장이 아닌 명사문장 마지막에 붙는 불변사이다.

pai ma ma yeh'A white horse is a horse.' (Graham 1967: 4)

OV 순서를 갖는 고전중국어에서 불변사 *yeh*가 문장 끝에 붙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문장의 구조적 측면이나 형태적 측면, 그리고 의미론적 측면에서 볼 때 불변사 *yeh*는 동사로 분류될 수 없다. Graham(1967: 8)은 그것을 '판단의 표지'(indicator of a judgment)로 제안한다. 중국어의 *yeh*는 비록 동일한 언어가족은 아니지만 한국어의 '이다'와 일본어의 '다' 및 수메르어의 'me', 아카드어의 'ma'와 통사 및 의미론적 측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한국어, 일본어, 수메르어에서의 그것은 시제적 활용을 하지만 중국어의 *yeh*는 아카드어의 'ma'와 같이 시제적 활용을 하지 않는 불변사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점은 있으나 의미론, 통사론 적인 측면에서 자체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 즉 범주1만을 가진다는 점과 문장의 마지막에 붙어서 술어성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

7. 결론

이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여러 언어에 나타난 'to be'에 대해 형태, 통사, 의미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리는 수메르어로부터 시작하여 알타이어, 썸어, 인도-유럽어, 중국어의 순으로 살펴보았는데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to be'에 대응하는 단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be'와 관련하여 우리는 전 세계의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전제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의미론적 범주1과 범주2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²⁴⁾

23) 대명사 *shih*를 계사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후기 회화체 중국어에서 발전된 것이며 정체판명(identity)을 위한 특별한 계사인 *chi*도 역시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Graham 1967: 10-1을 보라).

언어에 따라 'to be' 상당어가 우리말의 '이다', '있다', '되다'와 같이 의미론적 범주에 따라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는가하면 인도-유럽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에서 한 단어가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론적 범주를 포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현상은 통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즉 수메르어나 알타이어와 같이 전치사가 발달하지 못하고 후치사나 접미사가 발달하였으며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오는 언어에서는 의미론적 범주에 따른 어휘적 구분이 뚜렷하고 썬어나 인도-유럽어와 같이 전치사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의미론적 범주 구분에 따른 어휘적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고 한 단어에 두개 이상의 범주를 포함하는 현상이 발견됨을 파악했다.²⁵⁾

의미론적 범주 구분이 뚜렷한 언어에서 우리는 범주2와 범주3은 동사에 속하지만 범주1은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에 있어서 동사에 속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수메르어의 *me*나 아카드어의 *-ma*, 그리고 고전 중국어의 *yeh* 등과 범주1에 해당하는 알타이어의 단어들에서 그들은 동사가 아니라 자체적 의미는 없이 주어와 술어 사이에서 술어성만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⁶⁾ 만일 우리말 '이다'의 정체 및 역할과 관련된 논의를 여러 언어를 통한 우리의 비교연구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적어도 최현배 등이 주장하는 '용언설'은 설득력을 잃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연구가 배제되었는데 만일 'to be' 상당어에 대한 세계 여러 언어들을 역사적 발달과 결부시켜 공식적으로 살펴본다면 보다 더 깊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언어에 나타난 'to be'의 보편성이 아닌 각 언어에서 나타나는 'to be'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심층적인 비교 연구는 이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4) Kiefer (1967: 81)은 'be'에 상응하는 헝가리어 동사 *van*이 11가지의 어휘적 엔트리를 가지고 있으며 11가지의 방법을 가진 다의적어라고 하지만 그의 11가지 어휘적 엔트리는 범주1,2를 넘어서지 않는다.

25) 영어에서와 같이 *be*라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 범주를 갖는 현상은 비단 인도-유럽어족 외에도 아카드어, 우가릿어, 히브리어, 아랍어와 같은 썬어족은 물론 이집트어와 같은 어족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본다 (Gardiner. 1957. *Egyptian Grammar* 참조). 오스트로아시아 (Austroasiatic) 어족에 들어가는 베트남어에서도 (김진우: 1985: 260 참조) 역시 그러한 현상은 발견된다. 즉 'be'에 해당하는 *lă*가 범주1과 범주2에서 동시에 발견된다: [범주1] *tôi* (=I) *là* (=am) *con trai* (=boy), [범주2] *tôi* (=I) *là* (=am) *ở* (=at) *nhà* (=home). 조재현 (2000: 816), 김기태 (1970: 57)를 보라.

26) 그린란드어에서도 'be'를 표현하는 특별한 동사가 없고 접미적인 것으로 표현한다 (Mey, 1967: 29).

참고문헌

- 김기태. (1970). *기초베트남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진우. (1985). *언어*, 서울: 탑출판사.
- 박정규. (1998). 기사 ‘이다’ 문제의 재고, *어문연구*, 99, 100-125.
- 박주현. (1972). 한국어와 영어 ‘to be’ 동사의 비교연구, *영어영문학연구*, 6, 131-148.
- 박호관. (2003). ‘-이(다)’의 통사 구조와 의미 기능, *우리말글*, 28, 31-56.
- 서정수. (2006). *국어문법*, 서울: 도서출판 한세본.
- 성태수. (2004).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 *언어학*, 12(2), 23-54.
- 송복승. (2000). ‘이다’ 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4, 609-626.
- 양정석. (2001). ‘이다’의 문법범주와 의미, *국어학*, 37, 337-393.
- 유혜령. (2002). 학교문법에서의 ‘이다’ 처리 재고, *청람어문교육학회*, 24, 131-158.
- 조재현. (2000). *베트남어 한국어 사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조철수. (1996). 수메르어·한국고어 문법범주 대조분석, *언어학*, 19, 357-374.
- Bartelmus, R. (1982).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ischen "Allerweltswortes"*, St Ottilien: EOS Verlag.
- Bauer, B. (2000). *Archaic Syntax in Indo-European. The Spread of Transitivity in Latin and French*, New York: Mouton de Gruyter.
- Benveniste. (1950). ‘La phrase nominale’, *BSL (Bulletin de la Societ. de linguistique)* 46, 19-36.
- Bynon, T. (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D = The Assyrian Dictionary of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965ff.
- Campbell L. (1998).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Caplice, R. (1988). *Introduction to Akkadian*, third revised edition with the collaboration of Snell D.,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 Cho, Cheolsu. (1991). *Sumerian Verbal Prefixes: Structure, Function, and Mea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o, S. (2006). The Old Russian Copula byti 'be' and the Auxiliary byti 'be': One Lexeme or Two?, *JL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36, 273-296.
- Deutscher G. (2000). *Syntactic Change in Akkadian. The Evolution of Sentential Complemen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sold, R. (2006). and Connor-Linton, J.,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x, A. (1995). *Linguistic Reconstruc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omkin, V. & Rodman, R. (199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5th edition,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 Gardiner, S. A. (1957). *Egyptian Grammar, Bei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Hieroglyphs*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öksel, A. (2005). & Kerslake C, *Turkish: A Comprehensive Grammar*, London: Routledge.
- Gordon, C. H. (1965). *Ugaritic Textbook. Grammar, Text in Transliteration Cuneiform Selections, Glossary, Indice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 Gragg, G. (1967). The Syntax of the Copula in Sumerian, in J. W. M. Verhaar, *The Verb "Be" and Its Synonyms Philosophical and Grammatical Studeies* (pp. 86-109) (3rd edit). Dordrecht, Holland: Reidel Pub.
- Graham, A. C. (1967). 'Being' in Classical Chinese' J. W. M. Verhaar, *The Verb "Be" and Its Synonyms Philosophical and Grammatical Studeies* (pp. 1-39) (3rd edit). Dordrecht, Holland: Reidel Pub.
- Hayes J. (1997). *Sumerian. Language of the World*, Materials 68, München: Lincom Europa.
- Huehnergard, J. (1996). *A Grammar of Akkadian*, Harvard Semitic Museum Studies 45, Georgia: Scholars Press.
- Kiefer, F. (1967). The Verb Van 'to be' in Hungarian, Athapaskan, Mundrari in J. W. M. Verhaar, *The Verb "Be" and Its Synonyms Philosophical and Grammatical Studeies* (pp. 53-83) (3rd edit). Dordrecht, Holland: Reidel Pub.

- Krahmalkov, C. R. (2001). *A Phoenician-Punic Grammar*, Handbook of Oriental Studies, Section One, the Near and Middle East, Vol. 54, Leiden: Brill.
- Lete, G. D. O. (2003). & Sanmartin, J., *A Dictionary of the Ugaritic Language in the Alphabetic Tradition*, Part One, translated by Wilfred G. E. Watson, Leiden: Brill.
- Mace, J. (1998). *Arabic Grammar. A Reference Guide*,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ey, J. (1967). On the Notion 'to be' in Eskimo in in J. W. M. Verhaar, *The Verb "Be" and Its Synonyms Philosophical and Grammatical Studeies* (pp. 1-34) (3rd edit). Dordrecht, Holland: Reidel Pub.
- Miller, R. A. (1980). *Origins of the Japanese Language*, Lectures in Japan during the Academic Year 1977-78, Seattle,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Moscatti, S. (1980). Anton Spitaler Edward Ullendorff, Wolfram Von Soden,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Grammar of the Semitic Languages, Phonology and Morphology*,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Naveh. J. (1994). *Origins of the Alphabets. Introduction to Archaeology*, Herzlia, Israel: Palphot LTD.
- Schmalstieg, W. R. (1980). *Indo-European Linguistics. A New Synthesi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Shoichi Iwasaki (2002). *Japanese*. London Oriental and African Language Library, Vol. 5,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ivan, D. (1997). *A Grammar of the Ugaritic Language*, Leiden: Brill.
- Sungdal Kwon. (2007). *HYH(='to be')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Syntactic, Pragmatic and Semantic Studies by means of Statistical Analysis* (written in Hebr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Tsidka, Y. (1974). *The Verbal Complement in Modern Hebrew* (written in Hebrew),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Thomsen, M. L. (1984). *The Sumeria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and Grammatical Structure*. Copenhagen: Akademisk Forlag.
- Vlasto, A. P. (1986). *A Linguistic History of Russia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Clarendon Press.
- Wright, W. (2004). *A Grammar of the Arabic Language*, translated from the German of Caspari and edited with numerous additions and corrections by Wright, W., LL.D., revised by W. Robertson Smith and M.J.De Gorje, Vol. II,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
- Yardeni, A. (2003). *The History of the Alphabet* (written in Hebrew), Jerusalem: Carta.

권성달

431-762 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 롯데낙천대@ 107-301

전화: (031)387-3557

E-mail: sungdal61@hanmail.net/sdkwon61@yahoo.com

Received: 21 March, 2008

Revised: 20 May, 2008

Re-revised: 1 June, 2008

Accepted: 10 June, 2008